

조선 이야기

JOSEON STORIES



DEMOSAI I

조선 이야기

JOSEON STORIES

한국어판 · DEMOSAII

조선 이야기

JOSEON STORIES

불과 소금과 쇠로 이어지는 이야기

36곡 · 9개의 앨범 · 3개의 삼부작 · 하나의 이야기

demosaii

불은 태우고.
소금은 지키고.
쇠는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은 적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음악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노래였다.

서른여섯 곡. 아홉 장의 앨범. 세 개의 삼부작.

처음에는 노래 하나마다 조각 하나가 있었다. 목소리 하나, 장소 하나, 이름 하나, 선택 하나. 어떤 조각은 궁궐에 있었고, 어떤 조각은 저잣거리에 있었다. 섬과 전장과 부엌에 있던 것도 있었다.

그러다 그 조각들이 하나의 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조선 이야기는 그 실을 따라 거의 육백 년을 건넌다.

기록에서 거의 지워진 한 여자에게서 시작해, 글과 노래와 기억과 종이, 물과 소금과 쇠를 지나간다.

사람은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떠난다. 물건은 남는다. 말은 형태를 바꾼다. 이름은 사라졌다가 돌아온다.

음악은 이 세계의 일부이지만, 먼저 들을 필요는 없다. 이 책은 이야기이고, 노래는 그 길을 걷는 또 하나의 길이다.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된다.

차례

제1부 · 불

01 · 피와 안개

Blood and Fog

기록 I · 지워진 이름

02 · 먹과 불씨

Ink and Embers

기록 II · 먹이 소리가 될 때

03 · 재와 씨앗

Ash and Seed

기록 III · 첫 번째 종이

막간 · 불이 남긴 것

제2부 · 바다

04 · 소금과 파도

Salt and Waves

기록 IV · 땅끝의 네 사람

05 · 바다와 뼈

Sea and Bones

기록 V · 장부

06 · 섬과 별

Island and Stars

기록 VI · 흰 돛

막간 · 물 아래의 이름들

제3부 · 쇠

07 · 눈과 쇠

Snow and Iron

기록 VII · 분이 · 열여섯 / 마흔넷

08 · 쇠와 피

Iron and Blood

기록 VIII · 그 줄

09 · 봄과 녹

Spring and Rust

기록 IX · 소금 향아리

세 개의 삼부작



불

한 여자가 지워진다. 선비가 쓴다. 글은 노래가 된다. 봉기는 실패한다. 말은 남는다.

바다

배 한 척이 십 년 동안 물 아래 누워 있다. 땅끝에서 네 사람이 만나고, 종이가 바다에서 올라온다.

쇠

북쪽이 뚫린다. 오래된 구분이 한 줄 안에서 무너진다. 한 여자는 이름을 쓰고, 한 젊은이는 읽지 못하는 것을 지킨다.

사람 하나. 노래 하나. 종이 한 장. 배 한 척. 이름 하나. 향아리 하나.



제1부

불

진실을 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피와 안개



제 1 장

피와 안개

BLOOD AND FOG

왕의 길목
도깨비불

빈 궁궐 메아리
피의 옥새

하나

밤에 궁궐은 넓어진다.

낮에는 사람이 있어 좁던 회랑이, 인시가 지나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왕은 그 회랑을 걷는다. 내관 하나가 등불을 들고 세 걸음 뒤를 따르지만 왕은 등불이 필요하지 않다. 이 길은 눈을 감고도 걷는다. 아버지가 걸었고 그 아버지가 걸었고 그 앞의 열두 왕이 걸었던 길이다. 둘 하나하나가 발바닥에 익다.

그 길 끝에 문이 하나 있다. 왕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전하."

내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왕은 대답하지 않는다.

문 안은 비어 있다. 왕은 그것을 안다. 석 달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밤마다 이 길 끝까지 걸어와 문 앞에 선다. 손을 대지는 않는다. 손을 대면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이 손끝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서 있기만 하면, 잠시는,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전하, 바람이칩니다."

"바람이 차구나."

왕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선다. 회랑을 되짚어 걷는다. 등불이 세 걸음 뒤에서 따라온다. 그림자가 앞으로 길게 늘는다. 왕은 자기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다.

둘

그 여자를 처음 본 것은 열아홉 살, 아직 세자였을 때였다.

경희루 뒤편에 그릇을 나르는 나인이 있었다. 왕은 그 여자가 그릇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사기 그릇이 돌바닥에서 깨졌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여자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줍기 시작했다. 그때 왕이 보았던 것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손이었다. 조각을 하나하나 줍는데, 순서가 있었다. 큰 것부터 줍지 않고, 가장 날카로운 것부터 주웠다. 다음 사람이 밟지 않게.

왕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연이 라 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아산의 관비였다. 그런 사람이 궁에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이고, 궁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정해져 있다. 연이는 평생 그릇을 나르다 늙어 나갈 사람이었다.

세자가 그 여자를 부른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연이라 하옵니다."

"글은 아느냐."

"모르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그릇을 나릅니다."

세자가 웃었다. 궁에 들어온 뒤로 처음 웃은 것 같았다.

셋

왕이 되던 해에 왕은 연이를 궁 안 깊은 곳으로 들였다.

침지도 없었고 품계도 없었다. 대비는 그 일을 알고도 한 달을 말이 없다가, 어느 아침 왕을 불러 이렇게만 물었다.

"전하, 나라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옵니까."

"아니옵니다."

"그러면 무엇이옵니까."

왕은 답하지 않았다. 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이름을 올릴 자리도 없었다. 다만 왕이 하루에 한 번,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정사가 끝나고 밤이 되면 왕은 그 방으로 갔다. 연이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왕이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면 연이는 듣기만 했다. 조언하지 않았고 편들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왕이 말을 마치면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은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왕은 그 물음을 좋아했다. 대신들과 하루 종일 논한 일이, 그 여자의 한 마디에 다르게 보이는 밤이 있었다.

한 번은 왕이 이렇게 말했다.

"네게 첩지를 내리겠다."

연이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생기면 사람들이 저를 보웁니다."

"보면 어떠하냐."

"보이면 지울 수 있사웁니다."

왕은 그 말을 웃어넘겼다. 그때는 웃어넘겼다.

넷

궁궐에서 사람을 없애는 데는 칼이 들지 않는다.

그해 봄부터 소문이 돌았다. 관비의 딸이 왕의 총명을 흐린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저잣거리에서 시작해 육조로 올라갔고, 육조에서 상소가 되었고, 상소가 열 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있었다. 종이에 적히면 사실이 된다. 왕은 그것을 그때 배웠다.

여름에 연이가 앓았다.

어의가 들었다. 탕약이 들어갔다. 사흘째 되는 밤, 왕이 그 방에 들었을 때 연이는 이미 말을 못 했다. 눈은 뜨고 있었다. 왕을 보고 있었다. 왕이 손을 잡자 손이 차가웠다.

"약을 다시 지어라."

어의가 옆드렸다.

"전하, 이미—"

"약을 다시 지으라 하였다."

새벽에 연이가 갔다.

기록에는 병사로 올랐다. 승정원일기에도 병사라 적혔다. 그 여자에게는 첩지가 없었으므로 장례도 없었다. 궁 밖으로 나가는 상여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그 상여를 따라간 사람은 늙은 나인 둘이었다.

다섯

왕은 그 뒤로 옥좌에 오래 앉아 있는 버릇이 생겼다.

정사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가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관이 등불을 갈러 들어왔다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 나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옆자리를 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은 적이 없었다. 왕비의 자리였고, 연이는 왕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왕은 그 자리를 보았다.

겨울에 눈이 왔다.

왕이 회랑에 나와 눈을 보았다. 마당이 희게 덮이고 지붕이 덮이고 담이 덮였다. 왕은 오래 서서 그것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을 했다.

눈은 모든 것을 덮는데, 왜 그 자리만은 덮이지 않는가.

물론 마당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 눈은 고르게 내렸다. 자리는 왕의 안에 있었다.

그 겨울부터 왕은 잠을 자지 못했다.

여섯

그리고 왕은 그 여자를 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꿈에서였다. 꿈에서 연이는 늘 등을 돌리고 있었다. 왕이 부르면 돌아보려 하다가 깨어났다. 다음에는 물에서였다. 경희루 연못을 지나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 곁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었다.

궁녀들 사이에 말이 돌았다. 밤에 처마 끝에 불빛이 떠다닌다고 했다. 도깨비불이라 했다. 어떤 나인은 그 불빛이 사람 모양이었다 했고, 어떤 나인은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 했다. 나인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폐비도 아니었고 귀신도 아니었다.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부터 빈전 앞에 향을 피우게 했다. 위패도 없는 빈전이었다. 향은 매일 밤 피워졌고, 매일 아침 다 타 있었다.

일곱

이듬해 봄, 왕이 사관을 불렀다.

"그해 여름의 기록을 가져오라."

사관이 가져왔다. 왕이 펼쳤다. 병사라 적혀 있었다. 어의의 이름이 있었고, 탕약을 지은 날짜가 있었고, 약재의 이름이 있었다. 왕은 그 약재의 이름을 오래 보았다.

"이 약재를 누가 들였느냐."

사관이 답하지 못했다.

"내의원에 물으라. 그 약재를 누가 들였고 누가 값을 치렀는지."

사흘 뒤 답이 왔다. 값을 치른 것은 내의원이 아니었다. 그 이름이 적힌 종이가 왕의 손에 들어왔을 때, 왕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접어서 소매에 넣었다.

그날 저녁 왕은 옥좌에 앉아 내관을 불렀다.

"붓과 인주를 가져오라."

"어인 일이시옵니까."

"교서를 쓸 것이다."

내관이 붓과 옥새와 인주를 들였다. 왕은 붓을 들였다. 그리고 인주를 옆으로 밀었다.

"전하."

왕이 소매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름이 적힌 종이였다. 그것을 상 위에 펴놓고, 왕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온화한 왕은 죽었다."

여덟

그 뒤의 일은 실록에 적혀 있다.

몇 명이 끌려갔고 몇 집이 멸했는지, 어느 대신이 어느 날에 사사되었는지, 어느 문중이 삼대에 걸쳐 지위졌는지. 사관은 그것을 적었다. 적으라 하였으

므로 적었다. 그러나 왕이 사관에게 다시 쓰라 명한 대목도 있었고, 사관이 다시 쓴 대목도 있었다. 그러니 그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만 이것은 어느 기록에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난 밤, 궁궐이 조용해졌을 때, 왕은 다시 그 회랑을 걸었다. 내관은 따르지 않았다. 등불도 없었다. 왕은 어둠 속을 끝까지 걸어가 그 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손을 댔다.

문이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왕이 그 자리에 앉았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처마 끝에서 무언가가 흔들렸고, 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하구나."

왕이 말했다.

"드디어 조용하다."

아홉

그로부터 서른 해가 흘렀다.

스물아홉의 윤제는 오래된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읽고 있었다. 서로 다른 해,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집안. 그런데 죄목의 문장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같은 문장이었다.

윤제는 연이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 궁궐의 빈방도, 이름 없는 상여도, 그 뒤에 시작된 밤들도 알지 못했다. 그는 다만 기록 속에서 반복되는 모양을 보았을 뿐이다.

사실은 같은 문장으로 세 번 되풀이되지 않는다. 서식은 그럴 수 있다.

윤제는 붓을 들었다.

지우면 누군가 다시 쓸 것이다.

태우면 누군가 기억할 것이다.

붓끝이 종이에서 떨어졌다. 먹이 말랐다.

그리고 이야기는 또 다른 손으로 넘어갔다.

지워진 이름

제1장 뒤

기록된 이름
연이

공식 칭호
없음

궁궐 내 지위
기록 없음

어머니
아산의 관비

글 읽기
기록 없음

묘표
없음

연이는 나인으로 궁에 들어왔다. 그릇을 날랐다. 한 왕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기록에는 끝내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나라에는 그 죽음을 제대로 부를 말이 거의 없었다. 칭호가 없으니 정식 애도의 자리도 없었다. 애도의 자리가 없으니 역사 안의 자리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름은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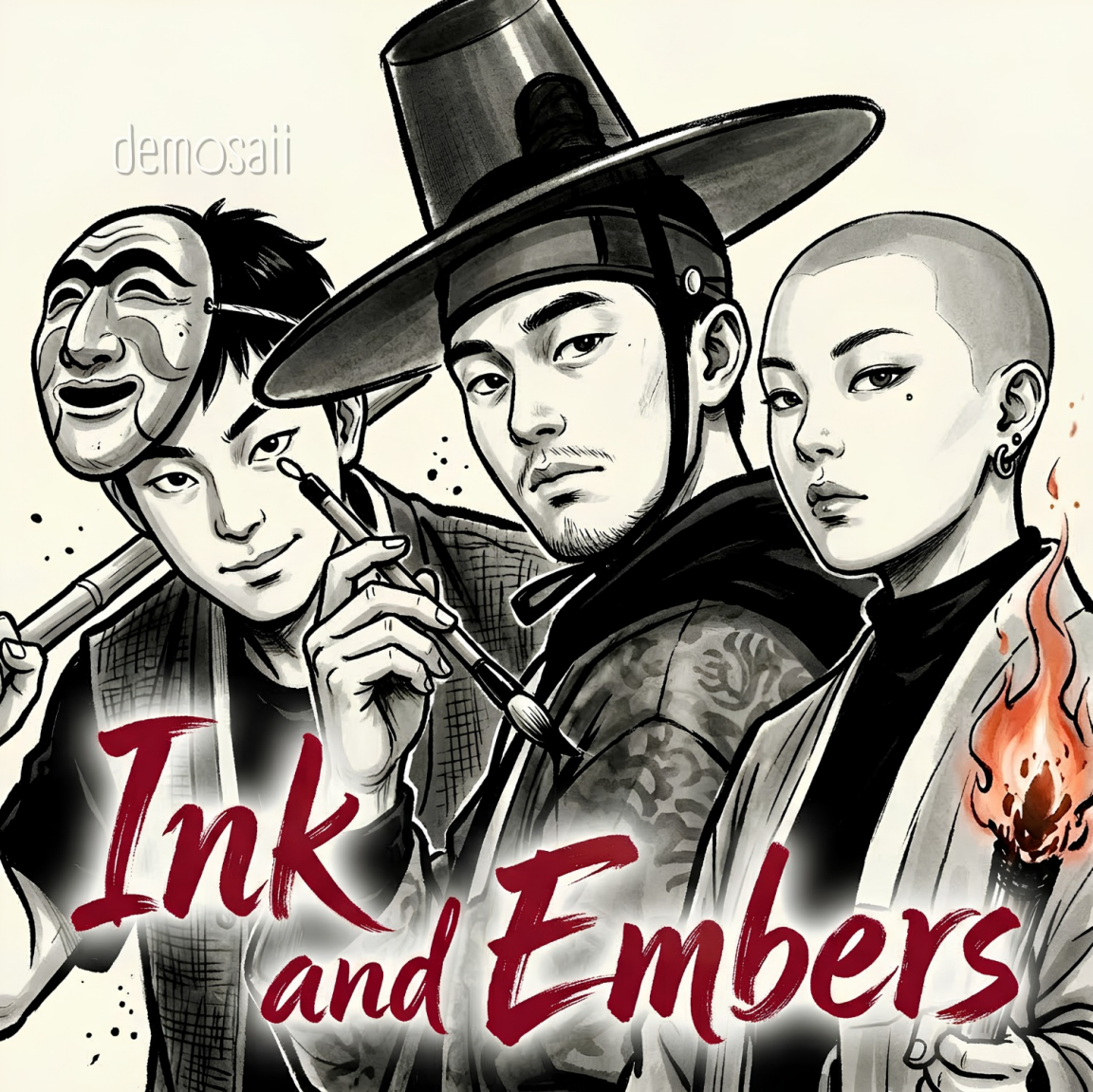
왕

열아홉에 연이를 처음 보았다. 한 세대 뒤 기록이 기억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사화, 체포, 죄목, 붉은 도장.

그 둘 사이에는 기록이 설명하지 못하는 방 하나가 있다. 빈방. 닫힌 문. 위패 없는 곳에 피어오르는 향.

역사는 문서를 없애는 방식으로만 지우지 않는다.
처음부터 문서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도 지운다.

demosaii



제 2 장

먹과 불씨

INK AND EMBERS



붓끝에 칼
산사의 여인

저갓거리
마지막 봉화

하나

윤제가 상소를 올린 것은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삼월이었다.

전날 밤 그는 그것을 세 번 고쳐 썼다. 세 번째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초를 끄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망설여서가 아니라 문장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그는 자기가 쓴 문장이 마음에 들면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새벽에 그는 관복을 입고 그 종이를 품에 넣었다.

상소의 내용은 어렵지 않았다. 지난 십 년간 세 차례의 사화가 있었고, 그 사화의 죄목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으며, 같은 문장이 세 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문장이 사실이 아니라 서식이라는 뜻이라고. 윤제는 그것을 조목조목 적었다. 감정은 한 줄도 넣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다.

사흘 뒤 그는 의금부에 있었다.

문초를 받는 동안 그는 세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함께 썼느냐. 그 종이를 누구에게 보였느냐. 윤제는 세 번 같은 대답을 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초가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다. 참형은 면했다. 대신 제주였다.

압송되어 나가던 날, 옥에서 나오는 그를 보고 누군가 침을 뱉었다. 사흘 전까지 그를 충신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다.

둘

제주의 바람은 육지의 바람과 다르다.

육지의 바람은 지나가지만 제주의 바람은 머문다. 초가 한 칸에 앉아 있으면 벽 틈으로 그 바람이 들어와 밤새 사람 곁에 있다. 윤제는 첫 겨울에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고, 두 번째 겨울에는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그는 어부 행세를 했다. 그물을 던지는 법을 배웠고, 못 배웠으나 배우는 척했다. 유배인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도 있었으나 그 법을 지키게

하려면 먹을 것을 주어야 했고, 아무도 주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 법을 말하지 않았다.

밤에 그는 붓을 들었다.

종이는 귀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흙바닥에 썼다. 다 쓰고 나면 발로 지웠다. 어느 날 마을 아이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지을 걸 왜 쓰시오."

윤제가 답했다.

"지을 것을 쓰는 게 아니다. 외울 것을 쓰는 거다."

그 아이가 이듬해 종이 한 묶음을 가져왔다.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대답하지 않았다.

셋

삼 년째 되던 해 봄, 젊은 사내 하나가 초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의 글이 한양까지 갔습니다."

윤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의 글은 이 섬을 나간 적이 없었다.

"장터에서 노래로 돌아다닙니다. 광대가 부르는데, 가사가 스승님 문장입니다."

"내 문장이라 하였느냐."

"제가 외웠습니다. '같은 죄목이 세 번 적히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서식이다.'"

윤제는 오래 말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쓴 것이 종이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종이는 태우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글이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십 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노래가 되어 있었다.

노래는 태울 수 없다.

넷

탈쇠 에게는 성이 없었다.

천민에게 성을 주는 관례가 없었으므로 그는 아명 하나로 평생을 살았고, 그 아명도 사람들이 편한 대로 불렀다. 장터에서는 그를 탈쇠라 했다.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이었다.

종로 네거리에서 그가 판을 벌이면 사람이 모였다. 그가 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다. 먼저 양반 탈을 쓰고 나와 뒷짐을 지고 걷는다. 그 걸음을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리고 지팡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도 뒷짐을 풀지 않는다. 사람들이 웃는다. 그 웃음이 무엇을 웃는 웃음인지는 웃는 사람만 안다.

포도청 나졸이 그것을 여러 번 보았다. 잡을 수는 없었다. 탈쇠는 한 번도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감이라고도, 저 대감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뒷짐을 지고 걸었을 뿐이다.

"저놈은 언젠가 잡힌다."

한 나졸이 말했다. 다른 나졸이 답했다.

"무슨 죄로."

다섯

제주에서 온 글이 탈쇠의 손에 들어온 것은 어느 봄이었다.

배를 타고 온 장사치가 소금 가마니 사이에 종이 한 장을 끼워 왔다. 탈쇠는 글을 조금 읽었다. 아주 조금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종이를 주막의 늙은 훈장에게 가져가 소리 내어 읽어달라 했다.

훈장이 읽었다. 다 읽고 나서 종이를 접었다.

"이건 위험한 글일세."

"무슨 뜻이오."

"쉬운 뜻이야. 그래서 위험한 걸세."

탈쇠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외웠다. 세 번 듣고 외웠다. 광대는 원래 외우는 것이 일이다.

그리고 그 종이를 훈장 앞에서 태웠다.

"어허, 아깝지 않은가."

"종이는 잡히지만 소리는 안 잡히오."

이레 뒤, 종로 장터에 새 노래가 하나 돌았다. 곡조는 흔한 타령이었고 가사는 우스웠다. 어느 고을 원님이 같은 문서를 세 번 베껴 쓴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웃었다.

한 달 뒤 그 노래는 개성에 있었고, 두 달 뒤에는 평양에 있었다.

여섯

속리산 암자의 여승은 법명을 정안 이라 했다.

고요할 정, 편안할 안. 그 이름을 지어준 노스님은 이 년 뒤에 입적했고, 그러므로 그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안 자신뿐이었다.

정안은 열일곱까지 궁 담장 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대사간이었다. 사화가 터지던 밤, 정안은 마루 밑에 숨어서 아버지가 끌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신을 신겨달라고만 했다. 나졸이 신을 신겼다. 그 장면이 정안의 안에 남았다 — 비명이 아니라, 신을 신기던 손이.

어머니는 관비가 되었다. 정안은 문중 아주머니 손에 맡겨졌다가 스물셋에 머리를 깎았다.

목탁을 치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경을 외면 덮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천 번을 외웠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발과 나졸의 손이 보였다.

"부처님."

정안이 어느 밤에 말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일곱

산 아래에서 노래가 올라온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나무를 지고 올라온 사내가 흥얼거리고 있었다. 정안은 그 곡조를 들었고, 그다음에 가사를 들었다.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소."

"장터에서 다 부르는 겁니다요."

"한 번 더 불러보시오."

사내가 웃으며 불렀다. 우스운 노래라 생각하고 불렀다.

정안은 끝까지 들었다.

그 노래 안에 있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같은 죄목이 세 번 적혔다는 이야기였다. 세 번 중 한 번이 정안의 아버지였다.

정안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다음 날도 자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안은 목탁을 내려놓고 산을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승복을 벗지 않았다. 벗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여덟

정안과 탈쇠가 만난 것은 종로 뒷골목의 주막에서였다.

정안이 먼저 물었다.

"그 노래, 누가 지었소."

"제가 지었소."

"거짓말이오."

탈쇠가 잠시 정안을 보았다. 삭발한 머리, 낡은 승복, 그리고 눈.

"제주에서 온 글이오."

"이름은."

"모르오. 알면 위험하오."

"나는 그 이름을 알아야겠소."

"어찌하여."

정안이 답했다.

"그 사람이 쓴 세 번 중 한 번이 내 아버지요."

탈쇠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에게 그 이름을 말했다.

아홉

봉화가 오른 것은 그해 시월 스무이레 밤이었다.

첫 불은 제주에서 올랐다. 배로 사흘 걸리는 거리였으므로 그것은 신호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 우리가 시작했다는 약속. 두 번째 불은 속리산에서 올랐고, 세 번째는 종로 저잣거리에서 올랐다.

탈쇠는 탈을 쓰지 않았다. 십 년 만에 맨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다. 장구채를 꺾어 버리고 햇불로 바꾸었다.

정안은 승복 차림 그대로 궁궐 담 앞에 섰다. 누군가 저 여승은 무엇이나 물었고,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정안은 담 너머를 향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한 번 불렀다. 그러자 뒤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을 불렀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을 불렀다.

그날 밤 궁궐 앞에서 불린 이름은 사백 하고도 몇이었다.

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새벽에 군사가 들어왔다. 봉기는 반나절을 넘기지 못했다. 저잣거리에 불이 붙었고, 불은 불은 봉화가 아니라 그냥 불이었다.

탈쇠는 살아남았다. 왜 자기만 빠져나왔는지 그는 평생 알지 못했다.

제주에서 윤제가 압송된 것은 열흘 뒤였다.

배에 오르기 전, 그는 초가에 있는 종이를 전부 태웠다. 태우면서 아이 하나를 불렀다. 종이를 가져다주던 그 아이였다. 이제 열여섯쯤 되었을 것이다.

"외울 수 있겠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제가 마지막 장을 읽어주었다. 아이가 세 번 만에 외웠다.

그리고 윤제는 그 종이라도 태웠다.

먹이 소리가 될 때

제2장 뒤



윤제

쓰는 사람
나라가 사실이라 부르는 곳
에서 반복되는 서식을 본
다. 그리고 쓴다.



탈쇠

목소리
종이를 지킬 수 없으니 외
운다. 외운 것을 리듬에 실
어 보낸다.



정안

불씨
노래 속에서 자기 과거의
모양을 알아본다.

쓰다 → 나르다 → 말하다

먹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증언이 된다.



제 3 장

재와 씨앗

ASH AND SEED



마지막 붓
빈 산

길 위의 그림자
첫 번째 새싹

하나

의금부 감옥에는 창이 없다.

그래서 윤제는 낱자를 세는 데 손톱을 썼다. 아침에 죽이 들어오면 벽에 금을 하나 그었다. 죽은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 금이 백 개가 되던 날, 그는 세는 것을 그만두려다가 그날치를 마저 그었다.

처음 한 달은 분했다. 자기가 쓴 문장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어디를 다르게 썼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했다. 두 달째는 슬펐다. 슬픈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다. 저잣거리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다 잡혀간 사람들.

백일째가 되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고요했다.

창이 없어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있었다. 제주의 수평선이었다. 그것은 끝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오래 보았다.

둘

형이 집행되던 날 아침, 이슬이 유난히 많았다.

끌려 나가면서 윤제는 형장 옆의 풀을 보았다. 파랬다. 봄이었다. 사형장의 풀도 봄을 아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네 살 겨울에 아버지가 그의 손에 붓을 쥐어준 일이 떠올랐다. 손이 너무 작아서 붓이 손보다 컸다. 아버지가 말했다. 글을 쓰는 자는 왕보다 오래 산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제 안다.

왕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왕도 언젠가 죽는다. 그의 글이 왕보다 하루라도 더 살면, 그가 이긴 것이다.

관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 말이 있느냐.

윤제가 답했다.

"내 목은 벨 수 있으나 백성의 입은 벨 수 없다."

후회가 있느냐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물었다면 없다고 답했을 것이다. 다만 아쉬움이 하나 있었다. 제주의 매화가 필 때, 바람에 꽃잎이 날리던 그 길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셋

탈쇠는 한양을 등지고 남쪽으로 걸었다.

탈을 버렸다. 장구도 버렸다. 맨얼굴에 빈손으로 길 위에 섰을 때 그는 자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광대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첫 마을에서 물 한 잔을 얻었다. 아낙이 물었다. 어디서 왔소.

"한양에서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입을 열었더니 눈물이 먼저 나왔다. 탈쇠는 자기가 우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했다. 노래로 하지 않았다. 웃기지도 않았다. 그냥 있었던 대로 말했다. 사람들이 끝까지 들었다.

다음 마을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다음 마을에서도.

넷

경상도 어느 주막에서 농부 하나를 만났다.

"그 양반 압니다. 글 쓰던 분."

"아신다고요."

"제주에서 올라온 그 글, 읽었어요."

탈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농부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말했다.

"그 글 기억합니다. 내 아들한테도 읽어줬어요."

그 순간 탈쇠는 알았다.

선비의 먹은 마르지 않았다. 자기 입을 통해 아직 흐르고 있었다.

다섯

이듬해 어느 고개에서 탈쇠는 젊은 사내 하나를 만났다.

제주 말씨를 썼다. 나이는 스물쯤이었다. 서로 어디로 가느냐 묻다가, 사내가 문득 물었다.

"혹시 그 노래 아시오. 같은 죄목이 세 번 적히면 어찌고 하는."

탈쇠가 걸음을 멈췄다.

"그건 어디서 들었소."

"들은 게 아니오. 외운 것이오."

사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 한 자도 틀리지 않았다.

"누구에게 배웠소."

"그 어른이 배에 오르기 전날 밤에 읽어주셨소. 세 번 만에 외웠소. 그리고 그 종이는 태우셨소."

탈쇠는 그 자리에 앉았다. 사내도 앉았다.

"글을 쓸 줄 아시오."

"조금 아오."

"그러면 한 번만 써주시오. 나는 외우는 것은 하는데 쓰는 것은 못 하오."

사내가 종이를 폈다. 그날 저녁 내내 썼다. 다 쓰고 나서 탈쇠에게 건넸다.

탈쇠는 그것을 품에 넣었다. 그 뒤로 삼십 년이 넘도록, 길을 옮길 때마다 함께 옮겼다.

여섯

정안은 걸어서 속리산으로 돌아갔다.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 같은 길인데 발이 달랐다. 무엇이 다른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승복에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세 번을 빨아도 남아 있었다. 네 번째에 정안은 그것을 놓아주었다. 냄새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은 것이었다.

다시 목탁을 잡았다. 같은 목탁인데 소리가 달랐다.

전에는 분노를 덮으려고 쳤다. 지금은 그냥 쳤다.

일곱

봄이 왔다. 매화가 피었다.

이번에는 예뻐다. 어머니의 정원이 떠올랐으나 아프지 않았다. 그냥 떠올랐다. 여름 빗소리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다. 듣고, 웃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다. 불이 아니라 그냥 낙엽이었다.

정안은 오래 궁금했던 것을 그해에 알았다.

분노를 놓는 게 아니었다. 분노를 다 태우는 거였다. 산 위에서 기도로는 다 탈 수 없었으므로, 산을 내려가서 햇불이 되어야 했다. 다 타고 나니 재만 남았다.

햇불을 들고 내려갔더니 돌아올 때 손이 비어 있었다. 빈 손이 그렇게 가벼운 줄 평생 몰랐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산 아래에서 사람이 하나 올라왔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였다. 얼굴에 길이 새겨져 있었다.

정안이 차 한 잔을 건넸다. 둘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알았다. 우리는 같은 불에서 왔다.

남자가 떠나기 전에 물었다.

"법명이 무엇이오."

"정안이라 하오."

"고요하고 편안하다."

"그렇소."

정안이 처음으로, 그 이름이 자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덟

세월이 흘렀다.

탈쇠는 늙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래도 마을에서 마을로 다녔다. 이야기를 하면 밥을 주었으므로 굶지는 않았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그가 들어선 것은 어느 여름 장날이었다.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들이 모였다. 탈쇠는 늘 하던 대로 시작했다. 궁궐 이야기, 선비 이야기, 불 이야기, 떡 이야기. 아이들은 무서운 옛이야기인 줄 알고 들었다. 다 듣고 나서 깔깔 웃으며 흠뻑 젖었다.

한 아이만 남았다. 열 살쯤 된 계집아이였다.

"그거 진짜요?"

탈쇠가 그 아이를 보았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다가 한 번 목소리가 달라졌소."

탈쇠는 오래 그 아이를 보았다.

아홉

그 마을에 세 번째 왔을 때, 탈쇠는 자기가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는 그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이제 열둘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네가 이어가거라."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날 밤 탈쇠는 아이의 집에 들러 할머니를 만났다. 삼십 년이 넘도록 품고 다닌 종이를 꺼내 상 위에 놓았다.

"나는 글을 모르오."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모르오. 그래서 말기는 것이오."

"모르는 사람이 왜 말소."

"읽을 줄 알면 읽고 싶어지고. 읽으면 말하고 싶어지고, 말하면 잡히오."

할머니가 그 종이를 천에 찼다. 마루청 하나를 들어내고 그 밑에 넣었다.

그리고 그 뒤 네 해 동안 아무도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열

분이는 전라도 논밭 사이에서 자랐다. 글을 배운 적이 없었다.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는 막을 수 없었다. 어릴 적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오래 남아 있었다. 궁궐과 선비와 불과 먹에 대한 이야기였다.

열여섯 살 봄, 할머니 방을 치우다가 마루청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아래에는 낡은 천에 싸인 종이가 있었다.

펼치자 한지 위에 글씨가 있었다. 분이는 한 글자도 읽지 못했다.

마을 훈장에게 가져갔다. 훈장은 첫 줄을 읽고, 둘째 줄을 읽다가 말이 없어졌다.

“무어라 적혀 있습니까.”

훈장이 끝까지 읽어주었다. 분이는 다 듣고 나서 종이를 다시 받아 들었다.

“글을 가르쳐주십시오.”

“여자는 안 된다.”

“그게 글자를 바꿨니까.”

훈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분이는 훈장 집 문 앞에 앉았다. 둘째 날도 그랬다. 사흘째 되는 아침, 문이 열렸다.

열하나

붓을 처음 잡던 날 손이 떨렸다. 너무 세게 쥐어서였다. 첫 획은 빼뚫어졌고 시작은 두꺼웠으며 끝은 가늘었다.

그래도 글자였다.

윤제는 죽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손에 들었던 원본도 불에 탔다. 탈쇠는 늙어 길에서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을 건너 종이가 되었고, 종이는 다시 한 소녀의 손에 붓을 쥐여주었다.

그 뒤로 분이는 읽었고, 썼고,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

세월이 더 흐른 뒤, 또 한 명의 선비가 진실을 썼다는 죄로 남녘 끝에 유배 되었다.

그의 이름은 수검이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다였다. 그리고 그 바다 아래에는, 아직 아무도 읽지 못한 또 다른 종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종이

제3장 뒤

원본
소실

살아남은 방식
기억

첫 운반자
제주의 이름 없는 소년

재작성
훗날 기억으로

다음 운반자
탈식

발견
분이, 열여섯



분이가 찾은 종이는 윤제가 마지막으로 손에 들었던 종이가 아니다. 그 원본은 제주에서 불탔다. 말은 다른 사람 안에 남아 있다가 다시 종이가 되었다.

분이는 그 글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읽는 법을 배우기로 한다.

분이가 처음 쓴 획은 떨어어졌다. 그래도 글자였다.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삶은 바꾼다.

막간

불이 남긴 것

0년

연이가 죽는다.

+30

윤제가 쓴다.

+31

윤제가 죽는다. 마지막 원본은 남지 않는다.

그 뒤

기억 속 말이 다시 종이가 된다.

분이 · 12세

재작성된 종이가 마루 밑에 숨겨진다.

분이 · 16세

그 종이를 찾는다.

불은 물건을 없앤다.
그다음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제2부

바다

세상이 묻으려 한 것.

SALT AND WAVES

demosaii



제 4 장

소금과 파도

SALT AND WAVES

유배길
늪은 그물

검은 돛
숨비소리

하나

교지를 읽는 목소리는 아침이었다.

죄인은 들으라. 붓으로 나라를 어지럽힌 죄, 남녘 끝 섬으로 유배를 명하노라.

수검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들었다. 읽는 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워서였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고, 관원은 젊었고, 아마 이런 일을 처음 맡았을 것이다. 수검은 그 떨림을 들으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 — 이 사람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어라 말할까.

갓이 벗겨졌다. 도포가 찢겼다. 남은 것은 먹물 든 손가락뿐이었다.

한양의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그는 듣지 못했다. 문은 원래 조용히 닫힌다. 다만 걸음을 스무 번쯤 옮긴 뒤에 돌아보았을 때, 그 문은 이미 멀었다.

둘

천 리 길은 걷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포졸 둘이 앞뒤로 섰다. 쇠사슬은 발목에만 채웠다. 손을 묶지 않은 것은 인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 손이 묶이면 넘어질 때 얼굴이 먼저 닿고, 얼굴이 상하면 도착지에서 말이 나온다.

논밭이 끝나고 돌담이 낮아졌다. 어느 날부터 바람에서 소금 냄새가 났다.

주막에서 노파가 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값을 치를 것이 없다고 하니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포졸이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수검은 그 국을 먹으며 알았다. 백성은 안다. 누가 죄인인지. 궐 안의 그들인지, 길 위의 나인지.

고개를 하나 넘자 세상이 끝났다.

아니 — 끝난 곳에서 바다가 시작했다.

셋

섬으로 건네준 사람은 늙은 어부였다.

이름은 갑수 라 했다. 관에서 샅을 준다 하여 나온 것인데, 샅이 얼마인지는 묻지 않았다. 배에 오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노를 잡고 앉아 있었으므로 수검이 알아서 올랐다.

노 젓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한참 뒤에 갑수가 물었다.

"뭘 하다 오시오."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있었던 일을."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물이 멀어지는 것을 수검은 돌아보며 세었다. 열두 번 노를 저을 때마다 물이 한 뼘씩 작아졌다.

그날 저녁 갑수는 마을에서 이렇게 말했다. 죄인이라 하던데, 눈은 맑더라. 바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넷

섬에서 유배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붕 하나다.

먹을 것은 주지 않는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으나, 그 법을 지키려면 굶어야 하므로 아무도 그 법을 말하지 않는다. 수검은 첫 달에 그물 낚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 달에 미역 말리는 법을 배웠다.

세 번째 달에 아이 하나가 초가 앞에 서 있었다.

"글을 아신다면서요."

"아느니라."

"제 이름을 써주십시오."

수검이 모래 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썼다. 아이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발로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써달라 했다. 그렇게 일곱 번을 썼다.

이래 뒤에는 아이가 셋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일곱이 되었다.

수검은 그것이 위험한 일임을 알았다. 유배인이 사람을 모으면 그것만으로 죄가 된다. 그러나 모래는 파도가 지운다. 지워지는 곳에 쓰는 글은 아무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는 십 년 만에 다시 즐거웠다.

다섯

배쇠가 그 섬에 처음 온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밀수꾼에게 성이 있을 리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배쇠라 불렀다. 배를 타기 때문이었다.

그는 달이 구름 뒤로 숨는 밤에만 돛을 올렸다. 돛은 검게 물들여 두었다. 포구의 등불을 등 뒤에 두고 뱃머리는 별 하나만 보고 갔다. 수군의 관선은 밤에 코를 골았고, 세상이 잠들 때 배쇠는 깨어났다.

심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조금 한 섬, 비단 한 필, 이름 없는 서찰 한 통. 값을 더 쳐주면 금지된 서책도 실었다.

그날 밤 그는 섬에 짐을 부리다가 초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유배 온 선비가 산다더니."

"그렇소."

"밤에 뭘 하시오."

"쓰오."

"뭘 쓰시오."

수검이 웃었다.

"당신이 실어 나르는 것과 같은 것이오."

배쇠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는 글을 몰랐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나르고 있는지는 알았다.

여섯

배쇠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겨울 뱃길에서였다.

북쪽 여울에 십 년 전 배 한 척이 가라앉았다고 했다. 관의 문서를 실은 배였다고 했다. 바다 밑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못 들은 척했다.

아는 것이 많으면 오래 못 산다. 그것이 배쇠가 서른 해를 살아남은 방법이였다. 그는 나르기만 했고 열어보지 않았다. 꺾이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은 적이 없었고, 서찰을 누가 보내는지 알려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뱃머리가 자꾸 북쪽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바람 탓이라 해두었다.

일곱

갑수는 사십 년을 그 바다에서 살았다.

큰아들은 풍랑에 데려가시고, 작은아들은 열병에 데려가시고, 아내는 기다리다 먼저 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아직도 바다로 나가느냐 물었다. 바다가 다 가져갔는데.

갑수는 그 물음에 대답한 적이 없다.

대답은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 빈 집에는 말을 걸 데가 없다.

동트기 전에 눈이 떠진다. 사십 년을 그리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이 먼저 안다. 마디 굵은 손이 그물을 낚는다. 구멍은 기워도 세월은 못 낚는다.

젊어서는 만선 깃발을 올리고 포구가 떠나가라 웃었다. 지금은 빈 배로 돌아와도 그만이다. 파도 소리만 뱃전에 가득하면 그만이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큰아들이 물에 잠기던 그 밤 — 그 밤에 북쪽 여울에서 배 한 척도 같이 가라앉았다. 관선인지 무엇인지 그는 모른다. 아들이 어째서 그 물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십 년을 물었으나 파도 소리뿐이었다.

여덟

섬의 여자들은 물에 들어간다.

물에서 그들은 아낙이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고, 이름 대신 누구의 어명으로 불린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면 다르다. 물속에는 양반이 없고 상놈이 없다.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위고, 못 참는 사람이 아래다. 그것이 전부다.

그중 상군이 옥이 였다.

옥이는 어미에게 배웠고, 어미는 그 어미에게 배웠다. 노를 저어 나가며 부르는 노래도 그렇게 배웠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가서 돌아오지 않는 섬의 이름이었다.

새벽 물안개가 걷히기 전에 태왁을 안고 물로 걸어간다. 숨 하나만 품고 내려간다. 갓 쓴 양반도 못 가는 곳, 그물 던진 사내도 못 닿는 곳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 물 위로 숨이 터진다.

휘이 — 하는 그 소리를 섬에서는 숨비소리라 했다. 살아 있다는 뜻이었다.

아홉

수검이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봄이었다.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물 위에서 휘파람 같은 것이 났다. 새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더니 사람이었다. 검은 머리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옆에 있던 아이에게 물었다.

"숨비소리라 하오."

"무슨 뜻이냐."

"숨이 다 되어 올라오면서 내는 소리요."

수검은 그날 저녁 초가에서 그 소리를 다시 생각했다.

숨이 다 되어 올라오면서 내는 소리. 죽지 않았다는 소리. 그는 자기가 지난 십 년 동안 낸 모든 소리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열

그해 여름, 옥이는 북쪽 여울에서 검은 배 한 척을 보았다.

깊은 바닥이었다. 그쪽은 물살이 세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으나, 그날은 물이 이상하게 맑았다.

갈라진 뱃전에 께짝이 잠들어 있었다. 물고기들이 그 사이를 드나들었다. 께짝 하나가 반쯤 열려 있고, 그 안에 종이 같은 것이 보였다. 물속에서 종이는 종이처럼 보이지 않는다. 흐물흐물하고 하얗다.

옥이는 그것을 보고 올라왔다.

숨이 다 되어서였다. 그러나 숨이 남았어도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의 비밀은 물에 두는 것이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말하지 않았다.

열 하나

그리하여 그해가 저물 무렵, 그 작은 섬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진실을 썼다는 죄로 유배 온 선비가 있었다. 달이 숨는 밤에만 돛을 올리는 밀수꾼이 있었다. 바다가 다 가져간 늙은 어부가 있었다. 그리고 물속에서만 주인인 여자가 있었다.

넷은 서로를 알았다. 섬이 작으므로 모르려야 모를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같은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바다 밑에 배 한 척이 십 년째 누워 있었고, 그 안에 이름들이 잠들어 있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중 하나뿐이었으며, 그 하나는 말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 뒤에는 폭풍이 온다.

땅끝의 네 사람

제4장 뒤



수겸

유배인

파도가 증거를 지우는 모래 위에
아이들 이름을 쓴다.



배쇠

나르는 사람

검은 돛. 글을 모른다. 나르고,
묻지 않는다.



갑수

어부

사십 년의 바다. 십 년의 기다림.



옥이

해녀

배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수겸은 쓴다.
배쇠는 나른다.
갑수는 기다린다.
옥이는 안다.

SEA AND BONES

demosaii



제 5 장

바다와 뼈

SEA AND BONES

폭풍
소금 편지

가라앉은 배
물 아래

하나

갑수는 사흘 전부터 무릎이 쭈뼛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도 없었다. 포구의 젊은 뱃놈들은 그물을 널어놓고 별을 쬔고 있었다.

갑수가 내려가 말했다. 배를 묶어라. 그물을 걷어라.

젊은 놈 하나가 웃었다. 하늘이 이리 맑은데 노인장.

갑수는 대답 대신 하늘을 보았다. 저녁이면 알게 될 것이다.

사십 년을 배를 탄 무릎은 하늘보다 먼저 안다. 그러나 무릎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가진 사람뿐이다.

둘

한낮에 하늘이 먹빛이 되었다.

먹빛이라는 말을 갑수는 그때 처음 썼다. 그전까지 하늘은 흐리거나 어둡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날의 하늘은 그 둘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하늘 위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파도가 돌담을 넘어왔다. 지붕이 날았다. 서까래가 우는 소리를 갑수는 들었다.

사람들이 산으로 뛰었다.

갑수는 마루에 앉아 문을 열어두었다.

도망칠 것이 있는 자들이나 뛰는 법이다.

바다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그는 보았다. 사십 년을 알고 지낸 바다였다. 무섭지 않았다. 잃을 것은 십 년 전에 다 잃었다.

셋

폭풍의 한가운데서 갑수는 바다에게 말했다.

소리치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십 년 전 그 밤에 내 아들을 데려갔지."

"그 밤에 배 한 척도 같이 가라앉았지."

"무슨 배였는지 나는 묻지 않았다. 물어도 파도 소리뿐이었으니."

"오늘은 묻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하여라."

"가져갈 것이 있으면 나를 가져가고, 돌려줄 것이 있으면 이제는 돌려주어라."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새벽에 폭풍이 지나갔다. 하늘이 씻은 듯 맑았고 물은 잔잔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갑수는 알았다. 바닥이 뒤집혔다.

넷

배쇠가 물길을 살피러 나간 것은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이었다. 폭풍 뒤의 바다는 전과 같지 않다. 여울의 모래가 움직이고 물살의 길이 바뀐다. 밀수꾼에게 물길은 목숨이므로 그는 새 길을 다시 읽어야 했다.

썰물이 가장 멀리 빠졌을 때, 검은 나무 한 조각이 물 위로 드러나 있었다. 뱃머리였다.

배쇠는 노를 멈췄다. 십 년 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배였다. 갈라진 나무에는 관의 표식이 남아 있었다.

폭풍이 배를 돌려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완전히 숨기지 못하게 만듦을 뿐이었다.

다섯

배쇠는 가까이 다가갔다. 부러진 돛대에 해초가 자라 있었고, 물 아래로 갈라진 선체가 이어졌다.

십 년 전 그 밤, 갑수의 큰아들도 이 근처에서 사라졌다. 그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둘이 이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배쇠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짐작이 아니라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옥이를 떠올렸다.

여섯

옥이는 사흘을 대답하지 않았다.

배쇠가 찾아와 말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배를 본 사람은 그녀였다. 여름에 이미 보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물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소."

"관의 문서요."

"그것뿐이오."

배쇠가 잠시 말이 없었다.

"사람의 뼈도 있소."

옥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바다는 그녀에게 늘 너그러웠다. 숨을 캐고 전복을 캐도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죽은 자의 곁을 파헤치면, 바다가 나를 용서하겠소.

일곱

괘짝은 무겁지 않았다.

물속에서는 무엇이든 가볍다. 옥이는 그것을 안고 올라와 물에 내려놓았다. 소금에 젖은 나무 냄새가 났다. 십 년 동안 바다 밑에 있던 냄새였다.

선비의 초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글을 모르오. 읽어주시오."

"어찌하여."

"바다 밑에서 안고 올라온 것이니, 무엇을 안고 왔는지 알아야겠소."

수검이 껌짝을 열었다.

여덟

소금이 문서의 많은 부분을 먹었다. 그래도 충분히 남아 있었다.

관의 도장. 날짜. 돈의 액수. 진술. 이름.

수검은 처음에는 글자만 읽었다. 그러다 그 글들이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는지 알아보았다. 누군가 돈을 냈고, 누군가는 그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고발했다. 거짓말이 거래처럼 적혀 있었다.

그는 자기 사건을 떠올렸다. 자기를 유배 보낸 문서와 같은 문장이어서가 아니었다. 같은 제도가 종이를 사실로 바꾸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검은 문을 열고 밤바다를 보았다.

“나를 세상 끝으로 보냈는데.”

그가 장부를 돌아보았다.

“그 끝에 이런 것이 먼저 와 있었구나.”

아홉

옥이는 껌짝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소.”

수검이 고개를 들었다.

“갑수는 십 년을 기다렸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장부에 적혀 있소?”

“아니오.”

옥이는 자기 손을 보았다.

장부에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배 안의 열두 사람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내려가겠소.”

“무엇을 하려.”

“누구였는지 찾기 시작하려.”

열

다음 날 새벽, 옥이는 빗창을 두고 물에 들어갔다. 오늘은 무언가를 캐러 가는 날이 아니었다.

갈라진 배 안에는 열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옥이는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갔다.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만지지 않았다.

한 사람은 갑수의 아들일지도 몰랐다. 나머지 열한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다.

옥이는 선체에 손을 대고 말했다.

“왔소.”

잠시 뒤 한마디를 더했다.

“이름을 찾겠소.”

숨이 짧아졌다. 옥이는 위로 올라갔다.

열 하나

물 위로 숨이 터졌다. 길고 맑은 숨비소리였다.

배쇠는 배에서 들었고, 수검은 초가 앞에서 들었다. 갑수는 바닷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손을 가슴에 얹었다.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뜻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옥이는 물에 올라와 갑수를 한 번 보았다. 둘 다 다가가지 않았다.

수검의 초가에는 젖은 문서들이 하나씩 펼쳐져 말라가고 있었다. 나중에 세어보면 소금이 먹은 자리가 스물세 군데였고, 그중 열한 곳은 이름이 있던 자리였다.

그때 그들이 아는 것은 더 단순했다. 배는 비어 있지 않았다. 종이는 의미 없는 종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물 아래의 사람들은 너무 오래 이름 없이 남아 있었다.

기록 V

장부

바다가 지킨 것

출처

관의 기록

발견 장소

침몰한 배

물속에 있던 시간

약 십 년

상태

소금물 손상

권위의 흔적

관의 도장

남은 내용

돈, 진술, 이름

남은 글이 있고 사라진 글이 있다. 훗날 세어보면 손상된 자리가 스물세 곳, 그중 열한 곳은 이름이 있던 자리다.

01 이름 없는 서리 → 02 바다 → 03 옥이 → 04 수검

소금은 종이의 일부를 없앤다.
그리고 충분한 만큼을 남긴다.



섬과 별

ISLAND AND STARS

demosaii

제 6 장

섬과 별

ISLAND AND STARS

북두칠성
산문 앞에서

물로 돌아간 여자
이어도

하나

떠나기로 한 것은 그 겨울이었다. 수검이 장부를 옮겨 적는 데 열이레가 걸렸다.

소금이 지운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었다. 스물세 군데였다. 그중 열한 군데는 이름이 있던 자리였다.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놓고 보다가 배쇠가 물었다.

“어느 것을 북으로 가져가요.”

“사본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원본을 잃으면—”

“아니오.”

배쇠가 원본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그들의 종이가 있고, 관의 도장이 있고, 바다가 남긴 상처가 있소. 사본만 들고 가면 누군가는 당신이 지어냈다 할 것이요.”

수검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사본은 섬에 남기기로 했다. 원본은 기름 먹인 천과 삼베로 감아 배쇠의 품에 넣었다.

둘

돛을 올리던 날 밤은 맑았다.

배쇠가 흰 천을 꺼냈다. 검게 물들이지 않은 돛이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보이지 않겠소?"

"보이라고 올리는 것이요."

북두칠성이 낮게 걸려 있었다. 다른 별은 다 돌아도 그 일곱만은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뱃사람은 그것만 믿는다.

갑수 도 배에 올랐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그가 왜 가는지는 모두가 알았다.

그리고 옥이가 왔다.

아무도 그 여자에게 오라 하지 않았다. 스스로 배에 올랐다. 문서를 건진 손이었으니, 끝까지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했다.

셋

반나절을 저었다.

섬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옥이가 일어섰다.

뱃머리에 서서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었다. 멀어지는 섬을 보고 있었다.

수점이 물었다. 무슨 일이오.

옥이가 웃으며 말했다.

"물에 가면 나는 무엇이오."

"글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아낙이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인데, 저기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물의 싸움이오."

"나는 이미 내 싸움을 마쳤소. 뼈들을 만났고 이름을 건졌으니."

"내 몫은 여기까지요."

넷

태왁을 내려놓았다. 빗창도 두고 갔다. 가져갈 것이 없는 사람처럼.

저고리 끈을 다시 묶고, 셋을 한 번씩 보았다.

늙은 어부에게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으니.

선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은 이미 다 적혀 있었으니.

그리고 물로 들어갔다.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참 뒤에 멀리서 숨비소리가 한 번 들렸다.

살아 있다는 뜻이었다.

세 사람은 다시 노를 잡았다.

다섯

물에 닿은 곳은 작은 포구였다.

거기서부터는 걸었다. 사흘을 걸어 산길로 들었다.

속리산 어딘가에 암자가 하나 있다 하였다. 불을 들고 궁궐 앞에 섰던 여인이 거기서 목탁을 친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배쇠는 어느 주막에서 들었고, 수검은 그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이야기의 뒷부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산문 앞에 사내 셋이 섰다.

바다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다.

여섯

정안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마당에 자리를 폈다.

배쇠가 품에서 원본 장부를 꺼냈고, 수검이 그것을 펼쳐 상 위에 놓았다.

정안이 한 장을 넘겼다. 두 장을 넘겼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이 이름을 아시오."

정안이 고개를 들었다.

"알다마다요."

"내 아버지를 끌고 간 손이오."

일곱

그날 밤 정안은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갔다.

"이 사람은 대비마마 곁에 있었소."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에 왔었소."

"이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울었소."

수검이 물었다. 어찌 그리 아시오.

"어릴 적 궁궐에서 다 본 얼굴이오."

그리고 정안이 말했다.

"글은 누가 썼는지 모르오. 그러나 누가 시켰는지는 내가 아오."

"장부에는 이름만 있으나, 내 안에는 얼굴이 있소."

배쇠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같이 가시겠소."

정안은 한참 말이 없었다. 십 년을 산에서 산 사람에게 다시 내려오라 한 것이었다.

여덟

새벽에 정안이 답했다.

"짧어서는 햇불을 들었소. 그 불이 나를 움직이게 했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은 아니오."

정안은 닫힌 장부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불은 오래 들고 갈 수 없소. 이젠 갈 수 있겠지."

"같이 가시겠소." 배쇠가 물었다.

정안은 산 아래를 보았다.

"나는 다시 불이 될 필요가 없소. 기억하면 되오."

셋이 산문을 나설 때 정안이 배쇠를 불렀다.

"배 타는 사람."

배쇠가 돌아보았다.

정안은 전라도의 한 마을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곳에 글을 아는 여자가 있소. 오래전에 누군가 그 아이에게 종이 한 장을 남겼소."

배쇠는 마을 이름을 외웠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다.

아홉

그 뒤 잠시 기록이 끊긴다.

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장부가 속리산을 떠난 날 누구를 만났는지 남은 기록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해 겨울 북쪽 국경이 뚫렸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강이 얼었고, 성셋이 사흘 만에 무너졌고,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전에 죄인이라 부르던 사람까지도.

열

섬에서는 그 여자가 계속 물에 들어갔다.

새벽 물때에 태왁을 안고 걸어 들어갔고, 저녁에 나왔다. 전복을 썰고 미역을 말렸다. 전과 같았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가끔 그녀는 북쪽 여울로 내려갔다. 캐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갈라진 뱃전 사이에 앉아 잠시 있다 올라왔다.

열두 사람의 이름을 그녀는 다 외웠다. 관의 문서에는 없던 이름들이었다. 그 어미들이 알고 있던 이름들이었다.

물 아래에서 그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물속에서는 입을 열 수 없으니.

그래도 불렀다.

열 하나

밤이 맑은 날에는 북쪽 수평선이 붉었다.

봉화인지 노을인지 그녀는 몰랐다.

그들이 닿았는지도 몰랐다.

바다는 말하지 않는다. 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로 했다.

노를 저어 나가며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불렀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가서 돌아오지 않는 섬의 이름이었다.

그 노래에 그녀는 이름을 넣어 불렀다. 열두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붓을 놓고 형장으로 간 사람. 탈을 버리고 길을 걷던 사람. 불을 들고 산을 내려온 사람. 마루 밑에서 글을 찾은 아이.

그들을 그녀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이 섬까지 왔다.

재 밑에 씨앗이 있었듯 물 아래 이름이 있었소

바다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흰 돛

제6장 뒤

섬



바다 한가운데 - 옥이가 돌아감



물



속리산 - 정안이 읽음



북쪽 길

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검은 돛은 유용하다. 배치는 평생 그 아래 살았다. 이번에는 흰 돛을 올린다.

옥이는 두려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물이 바다보다 자신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돌아간다.

정안은 한때 불을 들었다. 이제는 증인이 된다. 장부에는 이름이 있고, 정안 안에는 얼굴이 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런데 기록은 다시 그들을 놓친다.

막간

물 아래의 이름들

십 년의 물.

열이레의 필사.

흰 돛 하나.

바다로 돌아간 여자 하나.

산 위의 증인.

그리고 북쪽이 뚫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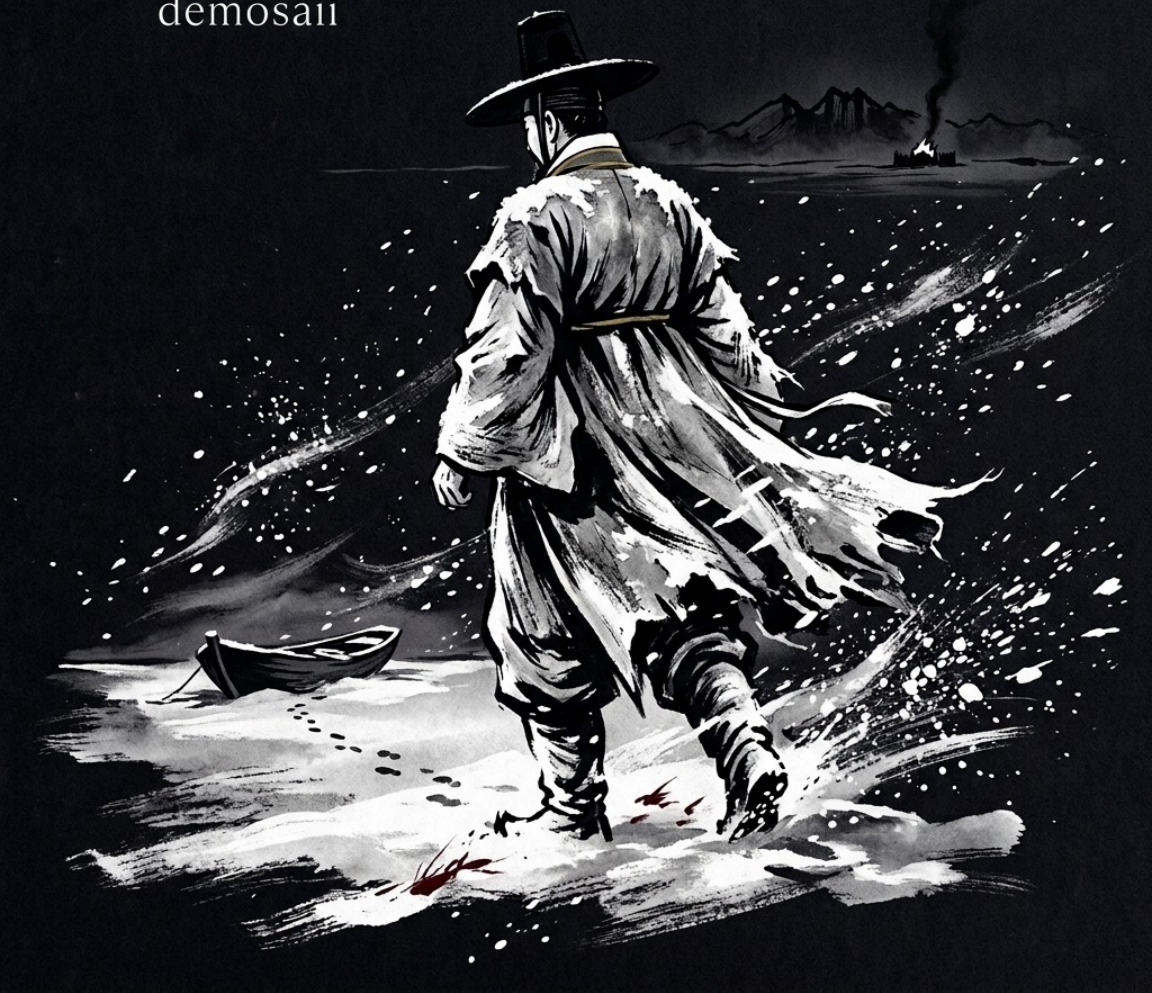
제3부

죄

기억이 책임이 된 뒤 남는 것.

SNOW AND IRON

demosaii



제 7 장

눈과 쇠

SNOW AND IRON

뭇을 내리다
모루

모여라
빈 줄

하나

포구의 아침이 바뀌기 사흘 전, 배쇠는 전라도에서 배를 내렸다. 수검과 갑수는 배에 남았고, 배쇠는 장부를 품에 넣고 정안이 알려준 마을을 찾아갔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나는 집 앞에서 마흔넷의 여자가 문을 열었다.

“훈장이시오.”

“그렇소.”

“속리산의 여인이 그대를 찾으라 했소.”

“정안이?”

배쇠는 기름천과 삼베에 싸인 장부를 상 위에 놓았다.

분이는 관의 도장이 남은 젖은 종이를 보며 손을 멈췄다.

둘

분이는 사흘을 읽었다. 첫날에는 남은 글을 읽고, 둘째 날에는 이름과 날짜를 다시 보았고, 셋째 날에는 없어진 자리를 세었다.

스물세 곳. 그중 열한 곳은 이름이 있던 자리였다.

셋째 날 밤, 분이는 장부를 덮고 배쇠에게 돌려주었다.

“이 이름들은 늦었소.”

“늦으면 소용이 없소?”

“아니오. 지금도 중요하오. 다만 지금 다른 이름들이 생기고 있소.”

분이는 마을 밖 북쪽 길을 보았다.

“그대는 오래된 이름을 가져가시오. 나는 빈 종이가 필요하오.”

배쇠는 장부를 다시 품에 넣었다.

셋

배쇠가 포구로 돌아왔을 때 아침은 평범해 보였다. 쌀 두 섬과 물 한 통이 먼 되었다. 사흘이면 한양에 닿을 거리였다.

상인이 쌀값을 두 배로 불렀다.

“요즘 쌀이 귀하오.”

“어제도 귀했소?”

“어제는 아니었소.”

그제야 배쇠는 부두 저쪽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다.

넷

소문은 조각으로 왔다. 북쪽이 뚫렸다.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성 셋이 사흘 만에 떨어졌다. 피난민이 벌써 고개를 넘어온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었다.

나라가 죄인을 사면한다.

유배인도, 노비도, 도적도, 싸울 수 있으면 오라 했다. 오면 죄를 지우겠다고 했다.

“평생 쫓던 놈들을 이제 와서 부르는구먼.”

“부를 사람이 없으니 부르지.”

배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삼십 년을 도망친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종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다섯

배로 돌아오자 수검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오.”

배쇠가 들은 것을 짧게 읊었다. 북쪽, 성들, 피난민, 사면.

수검이 배쇠의 품을 보았다.

“장부는?”

“십 년을 기다렸소. 하루 더 기다릴 수 있소.”

배쇠가 포구 밖 길을 보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 중에는 오늘 밤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배쇠는 흰 돛을 내리고 접었다. 배를 두고 북쪽 길로 올라섰다.

그것이 수검과 갑수를 본 마지막이었다.

여섯

길에는 두 줄이 있었다. 남으로 내려오는 줄과 북으로 올라가는 줄.

남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불과 그릇과 아이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북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적었다.

사흘째 되는 마을에서 젊은 관원이 교지를 읽었다. 싸울 수 있는 자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또 한 사람이 나왔다. 곧 셀 수 없게 되었다.

배쇠가 마지막에 섰다.

“이름?”

“없소.”

관원은 붓을 들었다가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이름 없는 사람이 여럿이었다.

일곱

더 북쪽의 마을에서는 대장간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았다. 대장장이는 사십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혼자였다.

마을에서 쇠불이란 쇠불이는 모두 그의 마당으로 왔다. 죄인의 사슬, 밥 짓던 솥, 부러진 연장, 어느 선비 붓대의 작은 쇠불이.

누군가 물건의 사연을 설명하려 하자 대장장은 말을 끊었다.

“쇠요?”

“그렇소.”

“그러면 주시오.”

불은 모든 사연에 같은 대답을 했다. 열. 망치. 일.

여덟

나흘째 되는 날 절에서 종이 왔다. 산에서 이미 깨뜨려 수레에 실은 백 년 된 종이였다.

조각 하나에는 비천상이 반쯤 남아 있었다. 대장장이는 그것을 집어 들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화덕에 넣었다.

나중에는 종의 모양이 남지 않을 것이다.

쇠는 남는다.

망치가 내려왔다.

아홉

배쇠가 떠난 이틀 뒤, 북쪽 소식이 분이의 마을에도 닿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상 위에 장부가 없었다. 대신 그 장부에서 읽은 이름들이 기억 속에 있었다. 스물세 개의 빈자리, 열한 개의 잃어버린 이름도.

그런데 마을에는 이미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 북쪽 길에서 헤어진 형제, 친척을 찾는 집.

오래된 장부는 이름이 너무 늦게 도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었다.

열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종이와 먹을 챙겼다. 사람을 돌볼 때 쓰는 것들도 함께 묶었다.

“어디 가시오.”

“북으로.”

“무엇 하려.”

“쓰러 가오.”

“무엇을.”

분이는 끈을 묶었다.

“이름을.”

열 하나

떠나기 전에 분이는 새 종이 한 장을 펼쳤다. 날짜를 적고 그 아래 한 줄을 비워두었다.

예전 장부의 빈칸은 누군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뜻이었다.

이 빈칸은 달랐다.

아직 이름을 적을 사람이 살아 있다는 뜻이었다.

분이는 종이를 접고 먹을 품 안에 넣었다. 몸의 온기로 얼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눈이 오기 시작했다. 분이는 북쪽으로 걸었다.

기록 VII

분이

열여섯 / 마흔넷



열여섯

읽지 못하는 종이.



마흔넷

읽을 수 있는 장부.

28년

열여섯의 분이는 종이 한 장을 읽지 못한다. 마흔넷의 분이 앞에는 또 다른 손상된 문서가 놓인다. 이번에는 남은 글을 모두 읽을 수 있다.

장부는 다시 북쪽으로 간다. 분이는 빈 종이를 챙긴다.

한 빈칸은 누군가 지워졌다는 뜻이다.
다른 빈칸은 아직 살아 있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대장장이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다. 사십 년의 대장간. 사슬, 술, 연장, 종. 쇠라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쇠와 피

IRON AND BLOOD



제 8 장

쇠와 피

IRON AND BLOOD

첫 줄
이름을 듣소

두 걸음
봉인

하나

서라 하였다.

어디에 서라는 것인지 물었다. 여기, 이 줄에, 하였다.

배쇠는 그 말을 두 번 들었다. 한 번은 귀로 듣고, 한 번은 발로 들었다. 발이 먼저 움직이려 하였다. 삼십 년이 발에 배어 있었으니 그것은 배쇠의 잘못이 아니었다.

바다에서 삼십 년을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그의 기술이었다. 관선이 오면 그는 이미 지나간 뒤였고, 불빛이 비치면 그는 벌써 그림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서라 한다. 움직이지 말라 한다.

평생 익힌 것이 도망인데, 그것을 쓰지 말라 한다.

그래서 배쇠는 자기 발을 붙잡고 섰다.

둘

옆에 선 놈이 그를 몰랐다.

어디서 왔느냐 묻지도 않았다. 스물 몇쯤 되어 보이는 관군이였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흘러내렸다.

그놈은 관군이고 배쇠는 사면받은 도적이였다. 두 달 전이었으면 그놈이 배쇠를 잡으러 왔을 것이다. 오늘은 둘 다 그냥 줄이였다.

그놈 손이 떨렸다. 배쇠의 손도 떨렸다.

떨리는 손 둘이 같은 창을 겨누고 있었다.

이런 것을 형제라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놈 옆에서 죽을 수 있다.

셋

북이 울렸다.

그다음 일은 배쇠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소리가 있었고, 밀림이 있었고, 밭밀이 미끄러웠고,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밀었다.

줄이 밀렸다. 뒤로 두 걸음, 세 걸음.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않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이상하였다. 그는 버틴 기억이 없었다. 발에 힘을 준 기억도 없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다. 옆이 버틴 것이다. 옆의 옆이 버틴 것이다. 그래서 나도 버틴 것이다.

이것을 그는 몰랐다. 삼십 년을 혼자 살았으니 알 도리가 없었다.

넷

해가 떴을 때 옆에 선 놈이 아직 서 있었다.

갑옷 어깨가 여전히 흘러내려 있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그놈도 모르는 것 같았다.

배쇠가 물병을 건넸다. 그놈이 받아 마시고 돌려주었다.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름은 여태 묻지 않았다.

다섯

그 왕은 이야기의 처음에 있던 왕이 아니었다. 그 왕은 오래전에 죽었다. 같은 왕좌에 앉은 후손이었다.

사흘 뒤 북쪽이 물러갔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 왕이 전선에 왔다.

의례용 북이 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왕은 말에서 내려 걸어왔다. 젊은 왕이었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북쪽이 물러갔다. 그대들이 세운 것이다. 과인이 그것을 안다."

"사면은 지켜질 것이다. 과인의 이름으로 약속하노라."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줄에서 한 사내가 일어나왔다.

여섯

"전하."

"말하라."

배쇠가 말하였다. 어제 아침에 사람 하나가 죽었다고. 싸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나고 죽었다고. 사면받은 자였고, 십 년 전 소금을 훔친 죄로 목이 잘렸다고.

"전하의 종이를 품에 넣고 죽었소. 그 종이에 전하의 옥새가 찍혀 있었소."

"그래서 묻소 — 그 종이가 무엇이요."

왕이 답하였다.

"그 사면은 전장을 덮는다. 전장 밖은 덮지 아니한다. 법이 그러하다."

"과인이 그 법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인이 그 법 위에 앉아 있다."

"그 장수는 법대로 하였다. 그러니 그 장수를 벌하지 아니한다."

알겠소, 하고 배쇠가 말하였다.

일곱

그러고는 하나만 더 묻겠다 하였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무엇이요."

"오늘은 즐기고, 내일은 무엇이요."

"전하 옆에 선 자와 전하가 사면한 자가 같은 흙을 밟고 같은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내일 아침에도 남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다시 도적이오."

왕은 답하지 않았다.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수는 벌하지 않을 수 있어도, 내일 아침은 약조할 수 없다.

그 침묵 동안 배쇠의 손이 품으로 들어갔다.

젖은 종이 한 벌이 거기 있었다. 십 년을 바다가 지킨 이름들. 이 사람들을 죽인 자들의 이름.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 걸음 앞에 서 있었다.

두 걸음이다. 두 걸음만 가면 된다.

손을 뻗다. 빈 손이었다.

왕이 그의 이름을 물었다. 없다 하였다. 그러면 그대로 두겠다, 하고 왕이 말하였다.

여덟

그 무렵 후방 천막에서는 분이가 이름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치료하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있었다.

손쓸 수 없는 상처를 억지로 손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건넸고, 손을 잡았고,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곁에 앉았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다.

“한 번 더 말해주시오.”

잘 들리지 않으면 다시 물었다. 관에서 불인 번호가 아니라 집에서 불리던 이름을 적었다.

어머니가 문밖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아홉

사흘째에 종이가 떨어졌다. 분이는 천에 적었다. 천도 떨어지자 나무 조각과 부러진 화살대에 적었다.

나흘째 아침에는 살아 있는 사람의 팔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재수 없소.”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살아서 씻어버리시오.”

한 사람이 팔을 내밀었다. 다음에는 둘이, 그다음에는 더 많이 내밀었다.

그중 한 사람은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 한쪽 어깨가 자꾸 흘러내렸다.

분이는 그 이름을 물었다. 젊은 병사가 대답했다. 분이는 적었다.

독자에게 그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열

전투가 끝난 날, 분이는 스물세 사람 가운데 열아홉 이름을 적었다. 넷은 묻기 전에 숨이 먼저 멎었다. 네 줄이 비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전령 하나가 봉인된 교지를 들고 왔다.

아무도 뜯지 않았다.

전투는 끝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안의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다. 임시로 지워졌던 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친 사람들까지 일어섰다. 또 하나의 줄이 생겼다.

교지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열 하나

그때 배쇠의 손이 다시 품으로 들어갔다. 분이가 그 손을 보았다.

“손을 빼시오.”

배쇠가 그녀를 보았다.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아오. 전라도에서 사흘을 읽었소.”

“그 종이는 십 년 전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소. 오늘 이 사람들도 당장 살리지 못하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यो?”

“아니오. 잃어버리지 말자는 말ियो.”

눈이 천막 끝에 내려앉았다.

“죽는 것만 거절은 아니오. 살아남는 것도 거절이 될 수 있소.”

배쇠가 오래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는 장부를 품에서 꺼냈다.

“내가 주면 무엇을 하겠소.”

“지금은 아무것도.”

“언제까지.”

“물을 사람이 생길 때까지.”

배쇠가 손을 놓았다. 장부가 분이의 손으로 넘어갔다. 배쇠의 손은 비었다.

뒤에서는 왕의 교지가 아직 봉인된 채였다.

분이는 장부를 품에 넣고 걸었다. 먹도 함께 품어 얼지 않게 했다.

그 줄

제8장 뒤



배쇠

삼십 년을 움직여 살아남았다.
하루는 움직이지 않아서 살아
남는다.



이름 없는 병졸

스무 살쯤. 한쪽 어깨가 남는
갑옷. 배쇠는 물을 건네고 이
름은 묻지 않는다.

하루 동안 구분이 무너진다. 관군, 사면받은 죄인, 옛 유배인, 이름 없는 사람. 줄은 어제 무엇이
었는지 묻지 않는다. 오늘 서 있는지만 묻는다.

제8장의 왕은 첫 장의 왕이 아니다. 그 왕좌의 후손이다. 사람은 다르지만 제도는 이어진다.

왕 앞에서 배쇠는 장부를 꺼내려 한다. 손은 빈손으로 나
온다.

뒤에는 분이에게 장부를 건넨다. 손은 다시 비게 된다.



제 9 장

봄과 녹

SPRING AND RUST

언 발
우리 할아버지가요

소금 향아리
봉인 · 오백 년 뒤

하나

이겼다고 한다.

무엇을 받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

땅이 아직 얼어 있다. 삽이 들어가다 만다. 두 해를 안 갈았으니 굳었고, 굳은 것을 푸는 데 사흘이 걸린다.

그는 싸우러 가지 않았다. 갈 나이가 지났다 하였다. 그래서 여기 있었고, 여기서 겨울을 났다.

작년에 종자를 다 먹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심을 것을 먹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올해 심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그는 밭을 간다. 심을 것이 생길 때를 위해서. 없는 것을 기다리며 있는 것을 판다.

둘

삽이 무엇에 걸렸다.

돌인 줄 알았다.

돌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엎드려 있었다. 갑옷 조각이 어깨에 걸려 있고 그 아래는 다 뜯겨 있었다.

그는 그 어깨를 잡고 돌렸다.

내 아들이었다.

셋

작년 가을에 보냈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갔다.

스무 해를 이 밭에서 키웠는데 사흘 만에 갔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못 했다. 잘 다녀오라는 말도 못 했다.

그 말을 못 한 것이 겨울 내내 목에 걸려 있었다.

숨이 아직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었었다.

가벼웠다. 스무 해 키운 것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맡은 그날 못 갈았다. 그다음 날도 못 갈았다. 사흘을 못 갈았다.

그래도 봄은 왔다.

넷

사십 일을 누워 있었다.

처음 보름은 기억이 없다. 아버지가 었고 왔다 하였는데 그것도 기억이 없다. 어깨가 낫지를 앓고, 비 오는 날은 뼈가 운다. 어머니가 매일 천을 삶으시고 그 김이 방에 찬다.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살아 돌아온 것은 맞다. 그런데 무엇이 돌아온 것인지 그는 모른다.

품에 든 것이 있다. 무엇인지 모른다. 젖은 종이 한 벌인데 글자가 가득하고 그는 글을 모른다.

다섯

싸움이 끝난 날이었다.

천막 뒤에서 한 여인이 그를 불렀다. 글을 아는 여자였다. 죽는 사람 이름을 적던 여자였다. 그의 팔에도 적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여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기름천에 싸고 삼베로 다시 감은 것이었다.

"이것을 맡아주소."

"나는 마흔넷이고 그대는 스물ियो. 그것뿐ियो."

"무엇이나 묻지 마시오. 알면 무거워지오."

왜 나였느냐 물었다.

"그대가 오래 살 것 같아서."

그 말이 지금도 무섭다.

여섯

입을 줄 알았으면 읽었을 것이다. 읽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는 모른다.

못 읽어서 지켰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금을 퍼신다. 큰 항아리다. 어깨까지 온다. 겨울 내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았다.

소금은 상하지 않는다. 소금 안에 든 것도 상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장에 가신 날, 그는 부엌에 들어갔다. 한 손으로는 아직 힘이 안 든다. 그래도 들어갔다.

소금을 반쯤 덜어냈다. 기름천을 밑에 놓았다. 그 위에 소금을 다시 덮었다. 뚜껑을 닫았다.

항아리를 원래 자리에 놓았는데 자리가 조금 틀어졌다. 그것을 바로 놓는데 한참 걸렸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항아리를 옮기신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안다. 아직 거기 있다.

일곱

육십 년이 지났다.

그는 여든이고 귀가 어둡다. 그래서 크게 여쭙야 한다.

손녀가 글을 배우러 다니는데, 훈장이 어른들한테 옛날 얘기를 여쭙보고 오라 하였다. 손녀에게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갔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소 얘기를 하신다. 소가 어땠고 밭이 어땠고, 비가 언제 왔고 언제 안 왔고.

"아니 그거 말고요. 전쟁이요, 전쟁."

그 말을 하니까 조용해지셨다. 한참 있다가 이러셨다.

"그때는 다들 갔다.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갔다. 스무 살이었다."

여덟

어깨를 보여주셨다. 여기가 아직 아프다고 하셨다. 비 오는 날은 뼈가 운다고 하셨다.

그 말이 웃겨서 손녀가 웃었더니 할아버지도 웃으셨다.

그런데 그다음 얘기를 하실 때는 목소리가 작아지셨다.

증조할아버지가 밭에서 업고 오셨다고 했다. 사십 일을 누워 계셨다고 했다. 처음 보름은 기억도 없으시다고 했다.

그러다 여자분 얘기가 나왔다. 글을 아는 여자였다고. 죽는 사람 이름을 적던 여자였다고. 그 여자가 무언가를 맡기셨다고.

아홉

"뭘 맡기셨는데요."

"종이."

"무슨 종이요."

"글자가 가득한 거."

"읽으셨어요."

"못 읽는다."

"그럼 누가 읽었어요."

"아무도."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셨다.

손녀는 못 들으신 줄 알고 다시 크게 여쭙다.

"할아버지, 그 종이 어디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하셨다.

열

진짜 기억이 안 나신 건지, 기억나는데 그러신 건지, 손녀는 모른다.

한 번만 더 여쭙볼걸 그랬다. 그런데 그날 피곤하다고 하셔서 그냥 나왔다.

훈장한테는 그냥 소 얘기만 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 있었다는 것만 안다.

그거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손녀는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스무 살에 전쟁에 나가셨는데요.

열 하나

그 묶음을 소금 항아리에 감춘 뒤 오백 년이 흘렀다.

밭은 더 이상 밭이 아니었다. 집도 부엌도 사라졌다. 그러나 부엌이 있던 땅은 남았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발굴했다. 붓, 자, 장갑. 흙을 조금씩 걷어냈다.

옛 바닥 아래에서 큰 웅기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소금이 남아 있었다.

소금을 층층이 걷어내자 천이 나왔다. 삼베. 그 아래 기름 먹인 싸개.

“종이입니다.”

장갑 낀 손이 멈췄다.

아주 오래전에도 같은 장부 앞에서 손 하나가 멈춘 적이 있었다. 왕과 두 걸음 거리에서 배쇠의 손이 멈췄다. 그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옳았다.

오늘은 달랐다.

낡은 싸개가 마침내 풀렸다. 그 아래 종이에는 세월과 소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관의 도장도 아직 보였다.

이름. 돈의 액수. 진술. 오래전에 돈으로 산 거짓말의 흔적.

누군가 읽었다.

읽을 수 있었다.

분이가 그 이름들은 이미 늦었다고 말한 지 오백 년이 지나 있었다. 늦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름을 읽었다.

오백 년 늦게.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이름을 지을 수 없었다.

불은 태우고.

소금은 지키고.

쇠는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은 적는다.

소금 향아리

제9장 뒤



병줄

분이가 싸인 장부를 맡길 때
스무 살. 글을 모른다. 열지 말
라는 말을 지킨다.



손녀

열다섯. 글을 배우고 있다. 종
이가 어디 있느냐 묻는다. “기
억이 안 난다.”

집에서 사십 일을 누운 뒤, 병줄은 열지 않은 묶음을 집안의 소금 향아리 깊숙이 감춘다. 기름천, 삼베. 그 위의 소금.

그는 보존의 이론을 모른다. 부역을 안다. 소금이 오래 간다는 것만 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감춘 뒤 오백 년. 부역은 사라졌고 향아리는 옛 바닥 아래 남았다. 그 안에는 소금, 천, 종이, 글씨, 그리고 관의 도장이 있었다.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장부

아홉 개의 손 · 육백 년

장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각자는 잠시 들고 있다가 다음으로 넘긴다.

01

이름 없는 서리

누군가 장부를 쓴다. 이름, 돈, 진술, 관의 도장.

02

바다

배가 가라앉는다. 장부는 십 년을 소금물 속에 있다. 일부는 사라지고, 충분한 만큼은 남는다.

03

옥이

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을 위로 들어 올린다.

04

수검

남은 글을 읽고 사본을 만든다. 사본은 섬에 남고 원본이 북으로 간다.

05

배쇠

물과 길과 산과 전장을 건넌다. 왕과 두 걸음 거리에서 손은 빈손으로 나온다.

06

분이

이미 한 번 읽은 장부를 다시 받는다.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다.

07

병졸

스무 살. 글을 모른다. 묶음을 열지 않는다.

08

소금 향아리

평범한 부엌 물건이 가장 긴 보관 장소가 된다.

09

장갑 낀 손

발굴. 흙. 소금. 천. 종이. 이번에는 읽어도 안전하다.

연표

육백 년 · 아홉 장

0년

연이가 죽는다

제1장 · 피와 안개

+30

윤제가 쓴다

제2장 · 먹과 불씨

+31

봉기가 실패하고 윤제가 죽는다

마지막 원본은 불탄다.

약 +32

말이 다시 종이가 된다

제주 소년의 기억에서.

+65

분이가 이야기를 듣는다

열 살 무렵.

+67

종이가 마루 밑에 숨겨진다

분이 열두 살.

+71

분이가 종이를 찾는다

열여섯. 글을 배우기 시작한다.

+88

관의 배가 가라앉는다

장부가 바다에 들어간다.

+98

네 사람이 만난다

수경, 배쇠, 갑수, 옥이.

+99

흰 돛이 북으로 간다

원본 장부가 북쪽으로 움직인다.

+99

북쪽이 뚫린다

분이 마흔넷.

+100

줄이 버틴다

배쇠 → 분이 → 병졸.

+101

장부가 소금 항아리에 들어간다

열지 않은 채.

+161

손녀가 묻는다

육십 년 뒤.

+601

항아리가 발견된다

감춘 뒤 오백 년.

인물

세 세 대



왕

왕좌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한때 온화하다고 불렸다. 연이의 죽음 뒤 달라진다. 제8장의 왕은 그의 후손이다.



연이

지워진 이름

청호도, 기록 속 자리도 없다. 이야기는 그녀가 있어야 했던 빈자리에서 시작한다.



윤제

쓰는 사람

본 것을 썼다는 이유로 유배된다. 글은 노래가 된다. 사람은 남지 못하지만 말은 남는다.



탈쇠

목소리

성이 없는 저갯거리 광대. 위험한 글을 종이가 담을 수 없는 형태로 바꾼다.



정안

증인

사화로 가족을 잃고 산으로 들어간다. 한때 불을 들고 내려왔고, 훗날 장부의 이름 뒤에서 얼굴을 읽는다.



분이

읽는 사람 / 적는 사람

열여섯에서 마흔넷. 종이 한 장이 읽는 법을 배우게 하고, 장부 한 벌이 늦게 온 이름의 무게를 가르친다.



수겸

유배인

글 때문에 바다로 쫓겨난 선비. 바다가 지킨 것을 처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배쇠

나르는 사람

검은 돛, 흰 돛, 북쪽 길, 한 줄, 왕 앞의 빈손.



갑수

기다리는 사람

사십 년의 바다. 답 없이 보낸 십 년.



옥이

해녀

침몰선을 보고 장부를 끌어올린다. 물 대신 섬과 바다를 선택한다.



대장장이

형태를 바꾸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사십 년의 대장간. 쇠라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



병줄

이름을 묻지 않은 사람

스무 살. 한쪽 어깨가 남은 갑옷. 글을 모르지만 장부를 지킨다.



농부

아버지

복으로 갈 나이는 지났다. 언 밭을 갈다가 아들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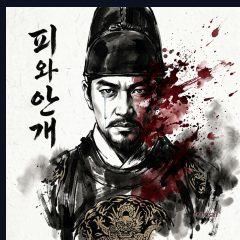
손녀

묻는 사람

열다섯. 글을 배우는 중이다. 종이는 찾지 못하지만 종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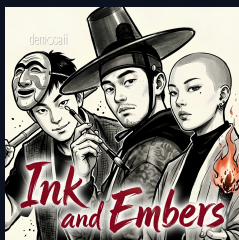
음악

9 개의 앨범 · 36곡



피와 안개

1. 왕의 길목
2. 빈 궁궐 메아리
3. 도깨비불
4. 피의 옥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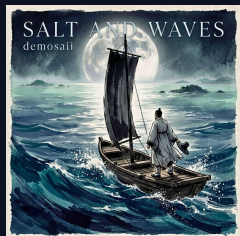
먹과 불씨

1. 붓끝에 칼
2. 저갯거리
3. 산사의 여인
4. 마지막 봉화



재와 씨앗

1. 마지막 붓
2. 길 위의 그림자
3. 빈 산
4. 첫 번째 새싹



소금과 파도

1. 유배길
2. 검은 돛
3. 늙은 그물
4. 숨비소리



바다와 뼈

1. 폭풍
2. 가라앉은 배
3. 소금 편지
4. 물 아래



섬과 별

1. 복두칠성
2. 물로 돌아간 여자
3. 산문 앞에서
4. 이어도



눈과 쇠

1. 돛을 내리다
2. 모여라
3. 모루
4. 빈 줄



쇠와 피

1. 첫 줄
2. 두 걸음
3. 이름을 듣소
4. 봉인



봄과 녹

1. 연 밭
2. 소금 향아리
3. 우리 할아버지가요
4. 봉인 · 오백 년 뒤

이 이야기는 음악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조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는 소설을 쓰고 있지 않았다.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

한 목소리가 다음 목소리로 이어졌다. 왕에서 선비로, 선비의 글에서 광대로, 광대에서 한 아이로. 그러다 이야기는 예상보다 멀리 갔다. 섬으로, 물 아래로, 장부 속으로, 전장으로, 부엌으로, 마지막에는 땅 아래로.

어느 순간 노래들이 더 이상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 같은 것을 나르고 있었다.

기억.

누가 기억되는가. 누가 쓸 수 있는가. 기록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원본이 없어도 이야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느 기관도 적어주지 않는 이름은 그래도 중요한가.

음악은 이야기가 목소리를 바꾸며 이동하게 해주었다. 산문은 그 목소리와 목소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음악을 대신하지 않는다. 음악도 이 책을 대신하지 않는다. 둘은 같은 이야기를 나르는 두 가지 방식이다.

이 책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결국 기록에서 사라진다. 사람의 삶은 육백 년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넘겨준 것은 이어질 수 있다.

문장 하나. 이야기 하나. 이름 하나. 종이 한 장.

끝내 장부를 혼자 구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나르고,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쓰고 있던 이야기는 그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영원히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멀리까지 나르는 이야기.

듣기

조선 이야기의 음 악

9개의 앨범 · 36곡

SOUNDCLOUD · [demosaii](#)

YOUTUBE · [demosaii](#)

조선 이야기 공식 사이트

이 이야기는 음악으로 먼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조선 이야기

JOSEON STORIES

불은 태우고.
소금은 지키고.
쇠는 기억하고.
그리고 사람은 적는다.

demosaii

